

2026년 8월 18일 배포 / 총 4쪽, 사진 1매

담당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실장 이 보 람

전화 : 02-3459-2791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과장 박 선 민

전화 : 02-3459-2843

K-발명품, 혁신의 심장 실리콘밸리서 통했다

- 2026 미국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서 한국 참가단 23개상 쾌거 -



<2026 미국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SVIIF 2026) 참가자 단체 사진>

한국 발명품이 세계 혁신의 중심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용)는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미국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 (SVIIF 2026)’ 에서 한국 참가단이 세미그랑프리 1개, 금상 9개, 세계지식재산 기구(WIPO) 및 산타클라라 시장 특별상 등 총 23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의 발명가와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 발명·혁신 행사다. 올해는 31개국에서 400여점의 발명품이 출품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공기업과 중소기업 등 총 9개사가 9점의 발명품을 출품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발명기술의 우수성을 선보였다.

한국 참가단은 세미그랑프리 1개를 수상한 데 이어 출품작 9점 모두 금상을 수상했으며, 전 출품작이 금상을 수상한 국가는 참가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발명·혁신 관련 기관이 수여하는 특별상 13개를 추가로 수상하며 대한민국 발명품의 우수성과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한국남동발전과 주식회사 일렉트릭코는 발전소 배관에 사용되는 스펀지 불이 물에 떠오르는 것을 방지해 세정 효율을 높이는 ‘함수 장치’로 세미그랑프리과 금상, 대만 특별상을 수상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소방방재연구소의 ‘관리 및 사용이 편리한 소화기’는 기존 소화기의 복잡한 사용 절차를 개선해 한 번의 동작으로 신속하게 분사되는 기술로, 현지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활용성을 높이 평가받아 금상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별상, 미국발명가협회(UIA) 특별상, 태국 특별상을 수상하며 4관왕을 달성했다.

아이씨티케이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복제하기 어려운 고유 보안키를 생성하는 ‘반도체 프로세스의 포토 마스크를 변형하여 반도체 지문(PUF)을 생성하는 방법 및 장치’로 금상과 산타클라라 시장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편, 행사가 열린 산타클라라는 글로벌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이 밀집한 실리콘밸리의 핵심 지역이다.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의 발명가와 기업, 연구기관 등이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국제 소통망을 구축하며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세계 혁신의 중심인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발명품의 기술력과 시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며 “특히 참가기업 전원이 금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발명기술의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성과” 라며 “우수한 국내 특허기술이 수상을 넘어 해외 사업화와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 붙임 : 2026 미국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 수상결과 1부. 끝.